

025 년 01 월 12 일의 소식

2025 Vision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딤후 4장 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틀란타
새총복교회

2025년 1월 12일 청년부 예배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경배와 찬양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Behold
기 도		강성경 자매
성경봉독	사무엘상 3장	드라마 바이블
말씀선포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최동현 목사
헌금찬송	말씀하시면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봉헌기도		최동현 목사
축 도		최동현 목사
교회소식		운영단

공동체 소식

1. 할렐루야! 새축복교회 뉴블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교회 / 사역 소식
 - 오늘 친교 | 배용미 집사님이 준비 해주셨습니다.
 - 새해 특별새벽예배 | 1월 6일 - 18일 / 2주간 새해 특별새벽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새해 특새 기간에는 특별히 새벽 5시 45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 월 ~ 금요일: 5시 45분
 - 토요일: 6시 45분
 - 밀알 봉사 | 1월 18일 토요일 밀알 봉사가 있습니다.

예배 위원

DAY	대표기도	뒷정리
01/12	강성경	수로셀
01/19	김하진	성원셀
01/26	김한솔	한솔셀
02/02	김수로	수로셀

새축복교회의 핵심 가치

말씀 공동체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공동체 (엡 4:11)
치유 공동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 (엡 4:12)
양육 공동체	영적 성숙으로 장성하는 공동체 (엡 4:13, 15)
훈련 공동체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 (엡 4:11)
선교 공동체	복음으로 땅끝을 품는 공동체 (엡 4:11)
셀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엡 4:16)
중보 공동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는 공동체 (엡 6:18)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장년예배	오전 10시 40분
주일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화-금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7시

헌금 안내

Venmo
@newblessingchurch

Zelle ID
newblessingchurch.atlanta@gmail.com

양육과 훈련 안내

새가족 교육 (3주)
세례자 교육 (5주)
결혼 학교 (4주)
통독 훈련 (매년 1번)
셀 성경공부 (매주 예배 후)
밀알선교회 (매주 셋째주 토요일)



[이 질문지 안에 있는 질문들은 “대화과 목상을 돕는 질문” 들입니다. 시험문제와 같이 기계적으로 모두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질문을 보다가 나누고 싶은 목상이 생긴다면, 주어진 질문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없는 질문을 여러분이 셀원들에게 던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마주치고, 그 마주침을 셀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셀 모임의 목적이기에, 그 목적 안에서 자유롭게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50112 주일청년 설교요약 | 사무엘상 3장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첫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삼상 3: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의 제물로 드러진 고기를 스스로 사취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엘리는 “매우 늙게 되었고” (2:22), 그 시간이 이르도록, 그는 자신의 아들들의 비행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나이가 늙었으니, 홉니와 비느하스는 당연히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고, 가정을 짓밟고, 자신의 개인의 거룩을 짓밟는 자들이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 시대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핑계 댈 수도 없습니다. 2장 27절 이하에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예배를 짓밟은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가벼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가문이 더 이상 노인이 없을 정도의 파멸을 겪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선언이 주어졌습니다. 환난이 내려질 것이며,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거의 저주와 파멸에 가까운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침묵합니다. 들었으나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말을 안 듣니?”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교훈을 받으나, 그 교훈이 마음으로 접수되지 않아서, 마치 귀로 듣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반응을 보일 때, “말을 듣지 않는다” 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씀이 희귀하다” 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하여도 더 이상 듣지 않는 방자함이 엘리르 비롯한 엘리의 아들들의 마음을 깊은 사망의 그늘에 가두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일곱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보입니다. 각 교회의 상황도 형편도, 약점도 강점도 다릅니다. 그들이 받는 책망도 칭찬도 종류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한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다름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상황과 형편과 상태는 제각기 다를 수 있어도, 모든 교회가 문제를 돌파하고, 건강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를 열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법이 없지만, 귀를 막는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귀를 막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 귀를 막고 파멸의 길을 스스로 자취하였던 엘리의 모습을 보며 요한 계시록의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삼상 3: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또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개인과 가정과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실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자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잠 29:18)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도행전에서 부흥은 “말씀이 흥왕해 지는 것”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 강해지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게 되는 것이 부흥의 본질입니다.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크게 열리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는 귀만 잔뜩 모여 있는 교회는 아무리 커도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무리 적어도, 듣는 귀가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나눔 질문

Q. 지난 한 해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 중에, 마음과 삶에 변화를 주는 “기억에 남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Q.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 여러분은 2025년을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둘째, 되새기라

참 애석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삼상 3:8)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삼상 3:9)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불과 세 번만에,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했습니다. 아마도 엘리의 청년 시절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반복될 때,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우울해지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참으로 영성이 있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나누었던 성도들이 “왕년”의 추억 짬으로 자신의 열정 어린 순종과 믿음의 시절을 먼지 더미 속에 던져 넣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처럼 말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성숙할만한 시험과 훈련을 거친 성도가 타락하고 식어지는 것만큼 슬픈 비극이 없습니다. 순수했던 처음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끝은 비참해 질 것입니다. 되새겨야 합니다.

나눔 질문

Q.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을 떠올려 봅시다. 퇴보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장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셋째, 머무르라

(삼상 3: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셀장님들 중 누군가 이 본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에, “대안” 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식어버린 엘리나, 타락해 버린 홉니와 비느하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변화 시킵니다. 사무엘의 역할은 단순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 중 “등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제사장은 원래 30세가 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그 직함을 받고 섬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에 머무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시절에는, 자신의 처소로 가서 깊은 잠에 빠진 엘리 (2절), 그리고 충분히 젊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홉니와 비느하스의 공백 때문에 결국 사무엘이 그 자리를 채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대단한 영성과 경험을 가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상 3:7)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나 아무리 어리고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맡은 지극히 작고 단순한 사명이라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것만 해도 엄청난 사명이었습니다.

충성이란, 결국 “머무는 힘”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때에 따라, 늦지 않게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일정함의 힘입니다. 마태복음 24:45절에서 “때를 따라”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자”로써 그 자리에서 일정한 직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눔 질문

Q.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머물러야 한다”고 주신 삶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머물러 지키라고 주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넷째, 전하라

사무엘 입장에서 가장 전하기 어려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나이에, 그 사명을 받고 감당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가혹한 임무를 주셨을까요? 그 일을 감당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 혹독하고 두려운 심판이 어떻게 실제로 엘리의 가문에 이루어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책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흠이 없는 보기 드문 종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평생을 보아도 잘못과 흠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고, 말씀의 보호를 받습니다. 말씀이 희귀해 지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으로 오늘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 듣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만큼이나 이 시대에서 어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입 있는 자들은 말하라. 성령이 세상에 주시는 말씀을 전할 지어다! 엘리야의 마지막 반응을 끝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에도 무기력하게 반응했습니다.

(삼상 3:18)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언뜻 보아 하나님을 존중하는 듯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말에 지나지 않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도 두렵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철저한 몰락의 순간이었습니다. 말씀과 단절된 그의 삶은 그의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써 인정 받고 입증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됨으로써, 그는 모두에게 명실상부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사람입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입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듣고 되새기며, 머물러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정체입니다.

나눔 질문

Q.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주신 “전할 말씀”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 고 하실까요? 한편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해진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